

남성의 헤어스타일로 본 젠더 정체성

-1960년대~2000년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Gender Identity Shown in Male Hair Style

-Focus on 1960s~2000s-

한 지 은⁺ · 정 성 혜

Han, Jee Eun⁺ · Jung, Sung Hye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교수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feminism, many political and cultural movements have been launched against prejudice about minority groups along with mass media. A desire for mixed sexual images both of feminine sensitivity and masculine reason rather than fixed ones has influenced contemporary styles. The remarkable change out of uniformed male images resulted in the extensive research on the images, but it is limited within general surveys on male fashion and commercial consuming products(e.g., Park, Gilsoon, 2005; Lee, Guiork, 2004).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effects the masculine images, that is the androgynous traits, have on male hair style. Then, this study corrects the misplaced definition of two types gender image; sexless and androgyny, provides their historical foundation, and follow the changes of contemporary hair style from 1960s. Finally, this study aims to help eliminate fixed ideas and reduce the generation gaps regarding male images, and provides data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Male Hair Style, Gender

I. 서론

페미니즘의 확산과 함께 문화의 다원화에 따른 성의 해방과 자아와 젠더의 재인식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특히 광고, 영화, 드라마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대에는 보수적인 이분법적 성 이미지에서 탈피해, 여성의 감성과 남성의 이성이 혼재된 양성적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이상형 이미지(Ideal image)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현상은 그 동안 꾸준히 변화해 온 여성보다 최근 남성들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특히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확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남성들은 머리를 깎기 위해 이발소를 찾지 않으며, 자신의 스타일을 위해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다니며 상담을 하고, 단순한 정리를 위한 커트가 아닌 현재는 자신을 가꾸고 표현하기 위해 염색과 펌을 하는 것에도 전혀 망설임이 없이, 이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뚜렷한 변화에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런 젠더 정체성을 부정하며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남성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패션과 소비성 광고 상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남성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헤어스타일에 대한 역사적 변화과정을 다루며, 왜곡된 젠더 현상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남성의 이러한 젠더의 성향이 헤어스타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세대 간의 갭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범위로는 남성의 양성성(androgyny) 성향이 널리 표출된 1960년대를 기준으로 현대까지의 과거의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전문 서적과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시대적 배경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60년대 이후의 남성 헤어스타일은 Fashion of A Decade라는 전문서적을 통해 주요 스타일을 선정, 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선정하고 인터넷 자료와 서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자료는 인터넷 서치 통한 자료 수집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또한 90년대부터는 60년~80년대의 외국 헤어스타일 트렌드의 피동적인 수용과는 다르게 국내의 실정에 맞는 변형의 움직임이 있었고, 2000년대는 외국의 트렌드도 수용과 함께 독자적인 트렌드가 형성되어 60년대~90년대는 해외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2000년대는 한국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II. 젠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부학적인 이분법적 성과는 다르게 사회적 성인 젠더의 용어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 GO(정부기구)회의에서 결정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주장하는 젠더는 남녀차별적인 성보다 대등한 남녀 간의 관계를 내포하며 평등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적인 동등함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¹⁾ 사회가 다원화되어감에 따라 성적 취향이 하위분화되고 세분화된 취향이 만들어짐에 따라 특정한 습성이나 욕구들이 여러 가지 젠더 정체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²⁾

젠더로 본 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 중성성(sexless)과 양성성(androgyny)이다. 그 중 이분법적 성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제외한 제 3의 성을 중심으로 한 양성성(androgyny)과 중성성(sexless)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양성성(androgyny)

1) 양성성(androgyny)의 정의

C.Calasibetta는 앤드로지너스의 어원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Andros라는 남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Andro를 가져오고, Gynacea라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Gyn을 합성한 단어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³⁾고 하였다.

Androgynous는 학자에 따라 sex적인 측면과 gender의 측면에서 정의한다. Alexandra G. Kaplan과 Jhon P. Bean은 sex의 측면에서 Hermaphrodite(양성체)로 정의하고 있으며⁴⁾, Vander Zanden은 Gender의 측면에서 감정과 역할 가능성을 표현하는 기준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양성성(androgyny)의 출현

양성성(androgyny)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볼 수 있다. 고대 헤브루 문구에서는 ‘아담은 처음에 양성체였으나, 신은 그를 두 쪽으로 가르셨다.’⁶⁾고 하였고, 이 외에 이집트 신화에서 신들

1)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28861>

2)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10.

3)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 9.

4) Alexandra G. Kaplan, Jho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p. 2.

5)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p. 186.

6) 김이은 (1994).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 34.

의 아버지 NUN이 양성체로 표현되고 있으며, 북유럽 신화에서도 신들의 아버지 Buri는 양성체이다. 동양에서는 보살이 양성체적인 상징이고, 도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은 여성과 남성이 붙어있는 형태라고 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남녀 한 몸이었으나 신이 이를 둘로 분리한 이래 그 각각은 한 몸이었던 상대를 찾고 몸을 합함으로써 원초의 상태를 복원하려고 한다”고 했다. 동양에서도 비이조뿐만 아니라 연리지에서 보듯 둘이 하나됨을 완벽하다고 보았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양성체는 신성한 것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이다.

3) 패션에서의 양성성(androgyny)

일반적으로 양성성(androgyny)은 정신적인 면에서 중요시 되지만 이러한 관념은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⁷⁾ 패션에서의 양성성(androgyny)의 용어는 19세기에 나타났는데 “앤드로진이라 단어가 잘못하여 몇부린 옷을 입은 무능력하게 된 젊은 남자 또는 보이쉬한 외관을 가진 여자들에게 적용되었다.”⁸⁾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성성(androgyny)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은 여성의 복식을 착용하고 여성은 남성의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라는 것이 양성성(androgyny)이다.⁹⁾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남녀 구별 없이 신체 특성에 꼭 맞는 라인이 특징적이며 팔찌, 귀걸이, 넥타이 등의 다양한 악세서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원색계열의 화려한 색상의 광택이 있는 복식을 주로 착용한다. 옷의 무늬는 주로 화려하고 대담한 무늬가 많으며 헤어스타일은 남성은 긴 머리, 여성은 짧은 머리로 화장을 하여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남성의 앤드로지너스 헤어스타일은 대표적으로 롱 컬리 헤어스타일과 어깨에 닿거나 그 이상 되는 길이의 헤어스타일로 표현된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1920년대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의 패션이 양성적인 여성이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소년들에게서 양성성을 볼 수 있다¹⁰⁾고 패션 역사가인 James Laver가 말했다. 이런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은 룩 스타들에 의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여성적 얼굴과 헤어스타일, 의복 등에서 남성과 여성, 젊음과 늙음, 인종의 경계까지 허물고 있으며¹¹⁾, 현대 모드의 다양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7)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 p. 241.

8)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p. 32.

9) 『Hi-Fashion』, 1984년 10월, p. 209.

10) Charlotte Mankey Calasibetta(1988). Ph D., 앞의 책, p. 343.

11)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p. 35~36.

2. 중성성(sexless)

1) 중성성(sexless)의 정의

중성적 이미지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¹²⁾ 두 성을 모두 표현하는 양성성(androgyny)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종의 젠더리스(Genderless)는 무성의 개념이고, 남성과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년, 소녀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하는 Sexless와 사회화 된 성을 근거로 Genderless는 의미를 같이한다. 젠더리스(Genderless)라는 용어는 사실 학계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고, 이 용어는 국내 패션업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추측된다.¹³⁾

2) 중성성(sexless)의 출현

중성적(sexless)복식은 남녀 체형을 드러내는 Y형, X형 등의 윤곽선이 나타나지 않는 평면적인 비구조적인 형태이다. 이는 “내부형, 색, 재질, 무늬 기타 등에서 두드러진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배제하고 있다”¹⁴⁾고 정의한다. 따라서 직사각형의 천으로 둘러 드레이프 옷을 입은 고대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십자군 전쟁 이후 재단기술과 봉제기술이 발달하여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로 엄격한 구분을 가진 르네상스 시대 이전 시기까지¹⁵⁾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중성성 스타일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 녀가 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 예로는 신부나 수녀의 의례적 로브를 들 수 있다.

3) 패션에서의 중성성(sexless)

이런 경향은 60년대 후반의 모노섹스(mono sex)나 유니섹스(Unisex)패션과 같이한다.¹⁶⁾ 주로 패션에서 중성성(sexless)은 유니섹스(Unisex)패션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바지, 티셔츠처럼 남,녀가 함께 입는 캐주얼웨어로 정착하였다. 중성성(sexless)의 헤어스타일은 주로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특정지어지지 않은 보브 컷 형태의 단발이 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 중성성(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신체적 특징을 감추어 중성성(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과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부위를 노출하면서 중성성(sexless)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런 중성성(sexless)의 패션의 시작은 직사각형 천을 둘러 입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아

12)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월, p. 221.

13) 이현구 (1998). 위의 책, p. 40.

14)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p. 13.

15) Marilyn J. Horn,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 80.

16) 이현구(1998). 앞의 책, p. 41.

볼 수 있다. 후에는 주로 종교인들의 튜닉스타일의 옷에서 볼 수 있고, 현대에는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소개된 레이어드 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체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겹겹이 두르고 성을 은폐시키는 이 패션은 90년대 힙합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반면 신체의 노출을 통한 중성성(sexless)의 표현은 예술 의상이나 미래를 공상하는 패션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런 중성성(sexless)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뤽 베송(Luc Besson)감독의 영화 '제5원소(The fifth Element)'에 나오는 밀라 요보비치(Milla Jovovich)의 의상이다. 역 내 이름 '리루'는 오렌지 색 고무 소재의 의상에 주홍색 머리를 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노출이 심한 옷으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지만, 사실상 '리루'는 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의 소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다. 이 영화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가 의상을 디자인 하여 기발한 그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는 찬사를 받았다.¹⁷⁾

III.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

고대 이집트인들은 청결을 유지하고, 강한 태양 빛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 남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가발을 썼고, 이는 중성적 이미지로 근본적으로 남,녀 성차가 헤어스타일에서 이루어 지지 않음을 말한다. 노예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장식해서 단발형 가발형태를 만들었고, 승려들은 가발이나 머리쓰개를 쓰지 않고 머리 형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인류학자 Charles Winik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인과 마찬가지로 고대 아테네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 커다란 감정적 차이가 없었고, 아크로폴리스에서 성을 구별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로마까지 지속되었다 한다.¹⁸⁾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점차 남성과 여성은 헤어스타일에 의해 구분되었고, 남성의 초기의 긴머리는 점차 단발 머리로 변화였다. 로마 남성들 역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짧은 곱슬머리의 단순한 형태를 좋아했고, 머리술이 적은 것을 수치로 여겨 가발을 쓰기도 했다.

반면, 중세의 세계관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는 천박한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화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¹⁹⁾ 비잔틴시대의 남성 머리는 그리스, 로마인의 머리처럼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스타일이었으나, 점차 짧아져 이마에 가지런히 내려오도록 깎은 앞머리와 단발 모양의 단순한 형태가 되었다. 이 시대는 모든 신체의 특징을 부정하는 중성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종래와 같이 짧은 단발이 주를 이루었으나 어깨까지 늘어지는 형도 있었다. 고딕시대에는 의복에서 최초의 남성과 여성의 신

17) 이현구(1998). 위의 책, p. 45.

18) Chaeles Winik (1970). Times October.12, p. 29.

19) Eduard Fuchgs (1986). 풍속의 역사 IV, 이기웅, 박종만 옮김, 서울, 까치, p. 2.

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식이 출현한 시기²⁰⁾ 복식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나 헤어스타일에서는 큰 변화를 가지지 못했다. 고딕시대의 남성은 머리의 중앙을 갈라 컬을 해서 어깨까지 늘어뜨렸고, 그 위에 관을 쓰기도 했다.

중세말기 이후(르네상스) 여성적인 취향의 우세는 남성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수염이 사라지고 머리칼은 부드럽게 어깨까지 놓이게 되었다. 남성들에게 여성성이 강조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후기에이 남성 머리는 강조된 상의와 함께 대체로 짧아져서 강한 남자의 인상을 느끼게 하는 남성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바로크시대는 종교의 지배를 벗어나 활기를 띤 시대사조의 부흥하여 현세의 향락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더욱 호화로워졌다.²¹⁾ 이에 남성 머리 역시 가장 여성스럽고 풍성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초기의 머리모양은 깃의 모양이나 높이로 인해 머리를 짧게 다듬어 전체적으로 곱슬머리를 하였다. 1590년대 처음 출현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인 러브록(lovelock)은 30년간 유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²²⁾ 꽤 오랫동안 어깨까지 내려오는 곱슬머리 스타일이 지속되었다.²³⁾ 17세기 중반부터 어깨에 내려앉는 플랫폼칼라가 유행하게 되자 다시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게 되었고, 머리를 양쪽으로 늘어뜨리거나 왼쪽머리다발을 리본으로 묶어 늘어뜨렸다. 후기에는 가늘게 땀은 머리에 리본을 달고 아래로 내려뜨린 것, 컬이 된 머리를 빗질 해서 간추린 것 등 머리카락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다. 1669년대 이후 페리 위그(peri wig)나 풀버텀 위그(full bottom wig)를 쓰는 것 또한 널리 유행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남성 패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발에 있었다. 바로크 시대의 신사들이 대형의 가발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로코코 시대 후반에는 경쾌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머리 모양을 꾸미게 되었다. 1730년 다시 가발이 유행하게 되면서 보브 위그(bob wig), 카도간 위그(cadogan wig), 피그테일 위그(pig tail wig), 백 위그(bag wig), 라밀리 위그(ramillie wig), 타이 위그(tie wig) 등이 있었다.

엠피어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은 로마인과 비슷한 부르투스 컷(Brutus cut)을 하고 구렛나루를 길렀다. 근대 부르주아적 복식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남자의 복식이 남성화되었다는 것이고, 부르주아 문화의 본질은 남성적, 생산적, 창조적이다.²⁴⁾ 이에 19세기 중반의 남성들은 머리카락이 뒷목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게 하고, 콧수염과 볼수염을 길러 점차 남성성이 강조되었다. 댄디들은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둥글게 하고, 가슴을 볼록하게 하기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여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나²⁵⁾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남성적이었다. 버슬시대에는

20) 박명희 (1978). 중세 서양 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2.

21) 정홍숙 (1988).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63.

22) Ribeiro, Aileen (1986). Dress & Morality, London, B.T.Bastford, p. 77.

23) Ribeiro, Aileen (1986). 위의책, p. 78.

24) Eduard Fuchgs (1986). 앞의 책, p. 44.

남자들의 머리카락 길이는 더욱 짧아지고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표 1>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천 요약표

시대	문화	남성 헤어스타일	헤어로 본 젠더 정체성
고대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족 - 삭발 후 가발 · 노예 - 머리를 자르지 않은 단발형 · 승려 - 삭발 	중성성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 긴머리 (칼을 이마 위로 내리는 형, 뒤로 빗어 넘기는 형, 긴 타래 머리형) · 후기 - 단발형 (귀와 같은 길이로 둥글게 자른 형태) 	여성성에서 중성성으로 변화
	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짧은 머리의 단순한 형태 · 성직자 - 긴머리 	남성성
중세	비잔틴	· 목덜미 길이에서 앞머리가 있는 짧은 단발로 변형	중성성
	로마네스크	· 짧은 단발과 어깨까지 늘어지는 형의 공존	중성성
	고딕	· 중앙 가르마의 쉼, 어깨길이	중성성
근세	르네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 어깨 길이 · 말기(세기말) - 점차 짧아져 강한 인상 강조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변화
	바로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 짧은 머리 · 말기 - 가장 여성스럽고 풍성해짐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변화
	로코코	· 단정하게 땀은 머리(bob wig, cadogan wig, cut wig, pig tail wig, bag wig)	여성성
근대	엠펙이어	· 로마인과 같아 보이는 스타일 유행 (Brutus cut)	남성성
	로맨틱	· 엠펙이어와 비슷함 (Brutus cut)	남성성
	크리놀린	· 뒷목에 닿지 않는 짧은 머리	남성성
	버슬	· 남성의 머리는 더욱 짧아짐	남성성
	S-letter	· 버슬시대와 흡사	남성성
현대	1900년대~50년대까지	· 짧은 길이의 머리, 앞머리를 밀착하여 뒤로 넘긴 형에서 점차 뒤로 넘긴 앞머리가 부풀려짐(swept back style)	남성성

25) David Kunzle (1982). Fashion and Fetishism, Totowa,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p. 116.

IV. 1960년대 이후 남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고찰

1. 1960년대-자의식의 대두와 다양화된 남성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베이비 붐(baby boom)’세대가 청년 문화를 증폭시키고, 소비주의의 독특한 청년문화를 형성하였던 60년대는 영국의 비틀즈(Beatles)와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는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고, 복식도 영패션(young fashion)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 또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동안의 남성다운 swept back style을 벗어나 <그림 1>과 <그림 2>에서처럼 눈썹 위까지 오는 앞머리와 뒷목을 덮는 둥근 형태의 바가지머리가 유행하게 되었다. 머리는 내추럴 스타일로 기존의 남성의 숏 컷과는 다른 형태였다. 비틀즈(Beatles)의 헤어스타일은 중성성에 가까운 형태였다. 전혀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은 바가지 스타일로 이 스타일은 그들을 순수한 소년으로 보이게 했다.

또한, 미국의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들은 미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반대 여론형성하며, 이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며 기존체제에서 이탈해버리는 히피(Hippie)가 생겨났다. 히피(Hippie)들은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정돈되지 않은 긴 머리가 나타났고, 자연과의 동화를 원하며 남성들도 귀 뒤에 꽃을 꽂는 장식을 했으며, 동양의 두건을 착용하였다. 히피(Hippie)의 헤어스타일은 근대 이후 사랑과 평화라는 여성적인 사상과 함께 온몸으로 여성성을 표현한 운동이었으며 머리에 꽃으로 장식하며 자연으로의 회귀와 여성적 장식욕구를 표출하였다. 또한 흑인인권운동으로 흑인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 그들의 고유의 머리인 아프로(Afro) 헤어스타일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림 4> 아프로(Afro) 헤어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이 유행한 중성적인 스타일이다. 60년대는 근대 이후 남성의 마초적인 헤어스타일이 지배하는 가운데 남성의 젠더의 다양성이 고개 드는 시대가 되었다.



<그림 1> 비틀즈(Beatles)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36



<그림 2> 롤링 스톤즈
(Rolling Stones)의
믹 재거(Mick Jagger)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6



<그림 3> 비틀즈(Beatles)의
존 레논(John Lennon)과
요코(Yoko)
Decade of Fashion p.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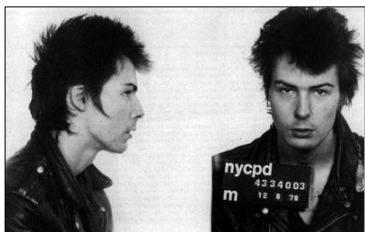


<그림 4> 잭슨 가족
(Jackson Family)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226

2. 1970년대-펑크와 글램 록

7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불황을 겪었던 암울한 시대였다. 이에 청년들의 실업의 증가와 암울한 미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 좌절은 극에 달했고 이로 펑크라는 새로운 스타일이 나타났다.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라는 록그룹의 등장으로 펑크 스타일은 더욱 확산되었고, 이들의 헤어스타일 또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림 5>에서처럼 M자로 깊게 파인 이마와 불규칙하게 잘라 뽀족히 세운 머리들과 수탉 벼슬같은 모히칸 스타일들이 유행했다. 이밖에도 여러 스타일의 펑크 헤어가 유행하였는데 <그림 6>과 같이 스파이크 헤어머리를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 물감으로 물들여 그들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혹은 커다란 가능성의 상징으로 쓰였다. 이런 펑크스타일 또한 중성성을 표방하나 강하고 위험한 느낌은 남성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컬러풀하고 밝은 톤 컬러는 여성성을 느끼게 하는 양성적 표현이었다.

또 하나의 70년대 스타일 글램(glam)은 우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반짝이는 장식과 소재의 패션을 선보인 글리터 록커(glitter rocker)²⁶⁾들은 성의 차용을 넘어선 크로스 드레스로 성 개념을 무시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로, 67년 데뷔하여 70년대 절정을 맞은 데이비드의 헤어스타일은 <그림 7>처럼 짧지만 머리를 뒤덮는 밝은 톤의 헤어스타일이었다.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의 헤어스타일에서 본 젠더는 짧은 길이의 헤어는 소년같은 중성적 이미지이나 밝은 톤의 헤어 컬러와 화려한 화장은 양성성을 나타내며, 이는 그의 양성애자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림 5>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시드 비셔스(Sid Vicious)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6> 1970년대 펑크족의 헤어스타일과 화장 형태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p.206



<그림 7>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231

3. 1980년대-신남성(New Man)의 등장

8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고성장을 이루면서 ‘美’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헬스나 미용을 통한 자기관리를 중요시 여기는 시기로 전문 뷰티 살롱이 대중화 되었고, 많은 분야에서

26)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p.185~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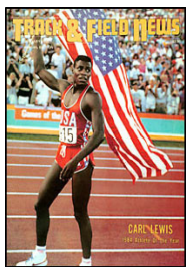
다원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미디어 평론가들과 광고 기획자들이 분석한 마케팅의 한 현상인 ‘신 남성(New Man)’이 등장하였고, 1980년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American Gigolo)’는 신 남성(New Man)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들은 젠더 정체성과 성적 특성의 중심으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패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신남성(New Man)의 활동적인 소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²⁷⁾ 반면 이에 반발하여 초남성(Hyper Masculinity)의 이미지가 대두되었는데 말보르 맨(Marlboro Man)과 영화 람보의 실버스타 스틸론(Sylvester Stallone)이 대표적인 예였다.

문화의 다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헤어스타일에서도 다원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82년 영국의 다이애나 비와 찰스 황태자와의 결혼은 여성들에게 단정한 다이애나 비의 단발을 유행시켰으며 또한 마돈나의 등장으로 풍성한 퍼머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남성들에게는 70년대부터 유행한 핑크 스타일과 함께 80년대 후반에는 칼 루이스(Carl Lewis)의 플랫 톱(flat top)스타일 <그림 8>, 스티브 심프슨(Steve Simpson)의 롱 컬리 헤어(long curly hair)등의 상반된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하지만 대중의 패션을 이끄는 80년대 팝스타들;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그림 11>와 프린스(Prince)<그림 10>, 보이 조지(Boy George)<그림 12>의 헤어스타일은 모두 과거의 헤어스타일과는 달리 강한 컬이 진 목뒤를 덮는 길이에서 등을 덮는 길이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이 롱 컬리(long curly hair) 헤어스타일은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인식되었다. 롱 컬리 헤어(long curly hair)는 매우 여성성이 강한 스타일로 남자의 양성성(androgyny) 성향을 강조했다.



<그림 8> 칼 루이스
(Carl Lewis)
Carl Lewis.com



<그림 9> 80년대
헤어스타일 Photo by
Sally Boon
Fashion 85 p.58



<그림 10> 프린스
(Prince)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8



<그림 11>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9



<그림 12> 보이
조지(Boy George)
Fashion 85 p.146

27)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New York, Routledge, p. 197~204.

4. 1990년대-힙합 레게, 나이트클럽

새천년을 앞두고, 세기 말의 공포는 과거로의 회기를 바라며 향수에 젖어들었고, 이는 모즈 록과 히피 록 등의 복고주의 패션을 이끌었다. 종말론이 유행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로 발전되어 많은 클럽과 나이트클럽들을 생기게 했고, 예술계에서는 문화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현상이 나타났다.

90년대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 개인적인 개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13>에서처럼 나이트 클럽에서는 화려하게 염색된 머리가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림 14>에서 보여지 듯 크로스 드레스에 맞춘 금발 가발 등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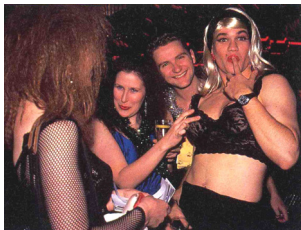
또한 90년대 중반에 들어 인종의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신세대들에게 미국에서는 백스트리트 보이즈(Backstreet Boys) 등의 십대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힙합 레게가 스타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레게 머리 종류의 드레드, 브레이즈 등의 머리가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적 움직임과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기존 체제의 많은 반발을 샀지만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는 급속한 유행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림 15>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화려한 색상의 염색은 대학가를 휩쓸었고, <그림 16>의 레게머리를 처음으로 미디어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은 젠더의 표현이그보다는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이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 역시 화려한 염색과 개성이 중시되었으나 90년대 후반 힐튼 호텔의 상속녀 패리스 힐튼(Paris Hiltton)과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가 패션 아이콘(Fashion Icon)으로 등장하면서 각 각 금발의 긴 생머리와 금발의 짧은 웨이브로 점차 헤어스타일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림 13> 나이트클럽 스타일 -염색한 머리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0



<그림 14> 나이트클럽 스타일 -금발 가발과 크로스 드레스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1



<그림 15> 서태지와 아이들 -염색한 머리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6> 서태지 -레게머리
<http://imagesearch.naver.com/>

이 밖에도 90년대는 비달 사순(Vidal Sassoon)의 등장으로 새로운 컷트 기법이 폭넓게 도입

되며 모발의 길이에 상관없이 자유로움과 조화로우며 강조한 채널컷트가 등장하는 등 헤어디자이너들의 개성 있는 연출이 중요시 되었다.

5. 2000년대-옴므 파탈(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새 천년이 시작되고 사회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는 동시다발적이며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90년대의 종말론에서 벗어나 사회는 밝고 경쾌한 사회기류가 형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극단적 페미니즘이 아닌 자연스런 현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점차 가부장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화된 가족형태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해 반영된 사랑의 다양성과 동성애자들의 생활을 그린 영국의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Queer As Folk)는 세계적으로 반영되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본의 드라마 너는 핏(きみはペット)에서는 전통적 남성상의 종말을 보여 주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마크 심슨(Mark Simpson)은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은 도시에 사는 남자로 예민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들은 남성미와 함께 여성적 취향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며 예쁜 얼굴의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을 가진 경제력 있는 20~40대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의 대두로 남성들은 전통적 남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고, 이는 화장과 마사지, 패션 등에 남성을 주류 소비자로 변모하게 하였다. 이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에는 할리웃 스타인 브래드 피트(Bradley Pitt)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데이비드 벅엄(David Beckham), 우리나라에서는 안정환, 강동원, 조인성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 17>에서 보이는 안정환의 헤어스타일은 그동안 거의 획일적이었던 운동선수의 짧은 머리에서 벗어나 목뒤를 덮은 퍼머 머리로 정리가 안된 듯한 이미지를 준다. 그리고 <그림 18>의 다른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의 대표주자인 강동원 역시 목을 덮는 긴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의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기존의 남성상과는 다른 여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아이돌 스타들에게서는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의 의복이나 헤어스타일, 악세사리 등을 단지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 활용하여 외향이 더욱 여성적이다. 이들은 성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이준기 <그림 19>, SS501의 김현중 <그림 20>,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그림 2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공통적으로 긴 머리를 즐겨하고,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보다도 섬세한 스타일을 즐기며 빈번한 헤어스타일 변화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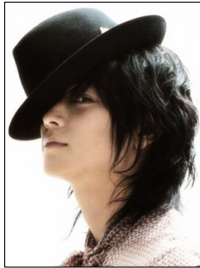
여성들 또한 크로스 섹슈얼의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보이쉬한 샤키 컷이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샤기 컷(shaggy cut)을 베이스로 한 스타일링을 한다. 샤기는 새기(shaggy)의 일본식 발음으로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으로, 얼굴이 넓고 골격이 강하며 머리카락

이 짧은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손질이 쉽고 느낌이 가볍고 경쾌한 것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그림 17> 안정환
-메트로 섹슈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8> 강동원
-메트로 섹슈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19> 이준기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20> 김현중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naver.com/>



<그림 21> 김희철
-크로스 섹슈얼
<http://imagesearch.naver.com/>

<표 2> Fashion Keyword와 Fashion Icon의 헤어스타일

시대	Fashion Keyword	여성 헤어	남성 헤어	Fashion Icon	젠더 정체성
60s	영모드 히피룩 미니멀리즘	부풀린 머리 보브 컷(Bob cut)	바가지 스타일 히피 스타일 아프로 스타일	비틀즈(Beatles)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 잭슨 패밀리(Jackson Family)	중성성 강조
70s	안티 패션 내추럴 룩	웨이브와 컬	짧은 소년 스타일 펑크 스타일	데이비드 보이(David Bowie)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양극화된 양성성 강조
80s	포스트 모던 앤드로지너스룩	풍성한 펴 다이애나비 컷	롱 컬리 헤어스타일	프린스(Prince) 보이 조지(Boy George)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여성성 강조
90s	그런지 룩, well-being	짧은 웨이브 밀착된 긴 헤어 화려한 염색머리	힙합 스타일 염색된 레계 머리	백스트리트 보이즈 (Backstreet Boys) 서태지와 아이들	다원주의적 양성성 강조
2000s	옴므 과탈 메트로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	섹시 스타일 보이쉬 샤키 컷	내추럴 스타일 샤키 컷	강동원, 안정환, 브래드 피트 (Brad Pitt)이준기, 김희철, 김현중	로맨티시즘적 양성성 강조

V. 결론

양성성(androgyny)은 고대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완벽성이었으나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남성에게 남성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여성의 차별로 이어졌다. 보수적인 남성사회에서의 남성의 양성성(androgyny)은 조롱과 야유였고, 남성에게 여자 같다는 말은 모욕이 되었다.

20세기에 이르러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다양한 성, 젠더이론이 등장하면서 억압된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문화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성이 자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동반하면서 성 정체성 이론에서 젠더 정체성 이론으로 전환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수정, 확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동경과 차별의 반발로 양성성(androgyny)현상이 부각되었지만 현재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에 대한 반발과 자신의 내적 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양성성(androgyny) 현상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의 양성성(androgyny)의 대두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상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지표이다.

또한 남성에게 여성이 성적 대상이었던듯이 이제는 여성에게 남성이 성적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섹슈얼(Sexual)이란 단어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응시에 의해 남성도 섹시하고 멋져야 각광받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시사한다.

옴므 파탈(Homme Fatale) -여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남자; 라는 신조어 등장이 현대의 풍토를 정의한다. 이런 옴므 파탈(Homme Fatale)의 시대에 많은 남성들이 헤어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외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남성의 젠더 표현이 자유로워졌으나 여성처럼 다양한 메이크업을 구사할 수 없고, 의복에 여자들이 팬츠를 대중적으로 입기 시작한 것처럼 치마를 대중적으로 입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헤어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성의 헤어는 가장 제약이 약한 여성성의 탈출구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의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연구는 남성의 젠더 표출의 매개체로서와 남성들의 미의식 trend를 알아보기 위해 중요하며, 남성의 변화하는 젠더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한다.

하지만 과거부터 진행된 헤어스타일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이나 헤어 전문 잡지가 대중성을 가지지 않고 미흡하다는 점, 또 국내 발간의 헤어 잡지는 구하기 어렵고 일본의 수입 잡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연구에 제약을 주었고, 선택된 패션 아이콘이 주관적일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킨 대중 스타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스포츠 스타와 가수, 그리고 영화 배우 등 장르의 한정이 어렵고, 통계적 수치 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남성의 연령, 직업군으로 구별한 인구통계학적 구체적 통계 수치가 가능하다면 더 정확한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대중 수용도를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여성과 남성 사이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상호 작용이나 관계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남성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이미지 연구가 계속되어 미래의 남성 헤어 및 패션 스타일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91).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 전선정 외 (2004).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 정홍숙 (1988).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Hi-Fashion」, 1984년 10월.
- 김경옥, 금기숙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1월.
- 김이은 (1994).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명희 (1978). 중세 서양 복시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 (1993). 복식에서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 이현구 (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성의 혼돈 양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미선, 조규화(1996). 로큰롤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2).
- 정세희 (2000).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수진, 김혜연 (1999).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3월.
- Alexandra G. Kaplan, Jhon P. Bean(1976). Beyond Sex-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Boston ·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 Chaeles Winik (1970). Times October.12.
-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88). Ph 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 David Kunzle (1982). Fashion and Fetishism, Totowa, New Jersey, Rowman and Littlefield.
- Eduard Fuchgs (1986). 풍속의 역사 IV, 이기웅, 박종만 옮김, 서울, 까치.
-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Cultural Studies in Fashion, New York, Routledge.
- June Singer(1976). Androgyny: Toward a new Theory of Sexualit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Doubleday.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80.
- Peter Ackroyd (1979). Dressing up: Transvestism and Drag: History of Obsess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Ribeiro, Aileen (1986). Dress & Morality, London, B.T.Bastford.